

성별	남	나이	26세	직종	기계운전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표○○(만 26세)는 2009년 11월 26일에 초경공구제조업체에 입사하였으며, 2010년 3월 모병원에서 천식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표○○은 2009년 11월 26일 초경공구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약 4개월 보름동안 하루 8시간씩 초경공구(톱날)표면을 연마하는 기계를 운전하였다. 천식을 유발했다고 의심되는 물질은 코발트와 곰팡이였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코발트는 노출 기준에 근접할 정도 수준이었다. 크롬도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나 노출 농도가 매우 낮았다. 세균 및 진균 노출량 검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절삭유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농도는 실외의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부단자검사서 양성을 보였던 칸디다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절삭유에서도 세균이 자라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입사 후 3개월 지나서 미열을 동반한 두통과 기침증상, 숨참증상(잠을 못 잘 정도)이 있어서 개인병원에 방문하여 결핵 및 신종플루의심하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치료 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산재요양 목적으로 S병원에 갔으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과거력상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 알러지는 없다고 하였으나, 얼굴 피부가 계속 안좋다고 하였다. 흡연력은 8갑년에 해당하였다. 음성기도과민성을 보여주는 메타콜린유발

검사는 음성이었다. 코발트 유발검사 후 시행한 메타콜린테스트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침포검사 25종에 음성 소견을 보였다. 피부단자검사(prick test)에서는 *Candida albicans*의 68종에서 음성소견을 보였다.

4. 결론

표○○은 천식으로 진단받았으나,

- 메타콜린 유발검사 음성 소견으로 기관지 과민성이 없으며,
- 코발트 유발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진단명은 천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천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